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착공

군, 2030년까지 단계적 조성… 농업 혁신·청년 유입 등 지역활력 제고 기대

진안군은 농업의 백년대계를 향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군은 30일 미령면 평지리 일원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춘성 군수,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단지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착공식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진안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총 11.9㏊ 규모로 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은 기반 조성→에너지 시설 구축→스마트팜 하우스 시설 구축→지원센터 건립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교육·실습형 스마트팜 1동과 소득·임대형 스마트팜 4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진안군은 30일 미령면 평지리 일원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23년 정부 공모사업에 어렵게 고배를 머물렀지만, 군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스스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농업 단지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해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은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새로운 활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안=전문선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확보

무주군-수푸름,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30일 (주)수푸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28세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수푸름 측은 2027년 공급 예정인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총 84세대

중 28세대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으며, 56세대는 일반공급 임대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 전형이 신설되며, 오는 11월 중 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모집부터 심사, 선정, 지원까지 본

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제1, 2금융권을 통해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연 대출이자 최대 5%를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입주 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2년 대해 총 7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 임대주택 모집은 (주)수푸름 측이 직접 12월 중 실시하며, 모든 임대 계약 또한 임대인인 (주)수푸름이 담당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정책 특강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정책 특강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역 내 돌봄 지원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력과 협업체계

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이 초청돼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황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의료·요양·돌봄의 정책 방향 및 시범사업 운영 경과, 향후 준비과제 등에 대해 공유됐다.

군은 지난 9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에 선정된 데에 이어 이번 특강을 통해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실행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주민 주도형 지역축제 눈길

무주군, 무풍면·적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 추진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 장터 축제'가 30일 장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이 기획과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한 주민 주도형 지역축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풍면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등굣길팀들이 지역 역광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한 풍물놀이, 색소폰·통기타 공연, 동화구연, 시 낭송, 난타 및 트로트 학창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사과 등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내 거점 시설을 기반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후 마을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다는 취

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현재 무풍면과 적상면 소재지 일원에서 2단계 사업(2023~2026)이 추진 중이다.

한편, 무주군 적상면에서는 31일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앞마당에서 '제2회 적상 오색 장날' 행사(10:30~)가 펼쳐진다.

공동체 문화 교류의 장(주민 동아리 성과 공유회)으로 마련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밴드 공연을 비롯해 홈페션 동아리가 진행하는 미니페스티벌, 숟가락 난타 공연, 시니어 건강 체조, 적상 취미대 공연, 난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전시 공간에서는 생활도예, 린넨인형, 어반스케치, 천공예, 리탄, 기죽공예 작품들과 만날 수 있으며, 주차장에 마련되는 체험 공간에서는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농산물 장터와 아나바다 소품 장터 등의 판매 공간, 그리고 부녀회에서 준비하는 국수와 떡국, 부채 등을 맛볼 수 있는 머거리 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농어촌버스 광역 (무주)환승 11월부터 실시

진안군은 1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광역(무주)환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안군의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도'는 관내 노선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광역환승 확대를 통해 군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인 무주까지 환승이 가능해졌다.

광역환승 대상자는 진안군 관내 주민이며, 버스 이용자는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1회 결제하면 60분 이내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환승할 경우 관내 최대 2회, 무주에서 최대 1회까지 적용되어, 총 3회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행복콜택시는 환승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한다.

이번 광역환승 확대 시행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어 생활권의 확장과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통근이나 통학 등으로 매일 무주를 오가는 관내 주민은 무주까지 환승할 수 있어 버스비와 시간 절약이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원경찰 직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청원경찰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에 따라 매월 4시간 이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정기 교육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청원경찰법 주요 제도 △직무 수행 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민원인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친절 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물발상황 대응, 위기 상황별 매뉴얼 숙지,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을 모두 보호하는 '정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인식과 친절한 공직문화 정착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